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관련 학생 문의에 대한 답변

1) 열람실 주말 개방 건

집행부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.
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-19 감염증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며, 이에 따라 평일 야간 시간대와 주말의 경우 개방이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.
향후 코로나-19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.

2) 시험일시 배정 건(1주차 혹은 2주차)

코로나-19 상황에 따라 본부에서는 시험기간으로 총 3주를 제시했습니다. 이는 시험 시간대를 분산, 학생 간 거리를 최대한 유지하여 코로나-19 감염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.
이에 따라 법전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,

① 시험유형과 응시인원에 따라 주차를 구분하여 실시
[1주차, 6월 15일(월) ~ 6월 19일(금)]
- 시험시간이 75분을 초과하는 기록형, 객관식+사례형시험 등
- 실제 응시인원이 50명 이상인 시험 (청강생 포함)
  ※ 1주차 시험은 조기종강 금지 규정 준수를 위해 15주차 수업(강평)을 반드시 실시

[2주차, 6월 22일(월) ~ 6월 26일(금)] : 1주차에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과목
[3주차, 6월 29일(월) ~ 7월 3일(금)] : 졸업시험 실시
② 시험일시는 본래 강의시간 내에서 배정
③ 응시생간 1.5m 이상 간격 유지를 위해 시험장소 임의 지정
④ 로스쿨 기말시험 최우선 배정

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응시인원이 30명이 넘는 시험은 1.5m 간격유지를 위해서는 2개의 강의실로 분반하여야 합니다. 이럴 경우 시험장소가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50명(대형강의실을 이용해도 분반이 불가피한 인원) 이상의 시험을 1주차에 먼저 실시하고자 합니다.
② 기록형이나 객관식+사례형 같은 시험유형은 시험시간이 75분을 초과하여 다른 시험과 중복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1주차로 배정한 것입니다.
③ 그리고 위의 시험들을 굳이 1주차로 배정한 이유는 수강인원이 많고 시험시간이 긴 시험은 답안채점부터 성적산출까지 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.

시험 일정이 길어짐에 따라 여러 불편한 사항이 많으시겠지만,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.

3) 시험 시 신분확인 방법

법전원 시험은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시험 중 신분증을 확인합니다. 이때 실물학생증 뿐만 아니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도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실물학생증을 발급받지 못한 학생들도 본인확인에 문제 없습니다.
반면 모바일학생증의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시험 중 휴대폰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응시생이 직접 휴대폰을 조작해야 하므로 부정행위나 소음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